

46번째, 농기구이야기

씨덮는 연장 ‘남태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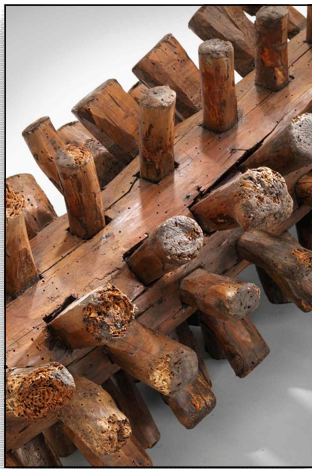
<남태, 너비 114, 높이 43, 농업박물관 소장>

- 편집 및 발행 :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
- 발행일 : 2011.1.2
-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,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.

1. 남태의 개념과 역사

남태는 씨 뿌린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. 주로 제주도 지방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전남지역 일부에서도 드물게 사용되었다. 남태에 관한 역사 기록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, 세종 11년에 간행된 『농사직설農事直說』에 나오는 윤목(輪木)이 남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다. “3~4월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윤목(輪木)으로 풀을 죽이고 바닥을 고른 다음 늦벼를 뿌린다.”는 내용이 있는데 남태를 사용하는 작업과 유사한 설명으로 여겨진다.

2. 남태의 형태



<남태 부분 ©농업박물관>

남태의 형태는 굵은 통나무를 절단하여 몸통주변에 짧은 나무토막을 촘촘히 박고, 몸통좌우에 회전고리를 달아서 사람이나 마소가 끌도록 되었다. 짧은 나무토막(발굽)은 8~9개씩 엇갈리도록 6~7줄을 박았다.

3. 남태를 이용한 땅 다지기

제주도의 화산재나 모래로 이루어진 토양은 바람에 날리기 쉽다.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밟아주는 ‘밭 밟기(밧븨림)’가 있었다. 밭 밟기는 조 등의 씨앗을 뿌린 후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다지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작업이었다. 이렇게 다져진 밭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켜 수분 함유율을 높임으로써 밭아를 도왔다. 조는 파종하고 나서 잘 밟아주지 않으면 밭아도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밭아가 되더라도 제대로 뿌리 내림[착근]이 되지 않는다.

밭 밝기에는 주로 말이 이용되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말들의 무리를 ‘말떼’ 혹은 ‘말태’ 라고 불렀으며, 주로 2~3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. 모자라는 말의 수를 채워주기 위해 말발굽 형태의 남태를 이용한 듯하다. 보리걷이가 끝난 6월에는 말을 이용한 밭불림이 시작되었다. 밭불리는 일에는 반드시 노래가 곁들어진다.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연희굿 중 하나인 세경놀이에도 ‘야, 이젠 톨 들이라, 테 들이라, 밭 불리자’ 라고 말을 이용한 밭불림을 설명하고 있다.



◎밭불림(위: 말을 이용한 밭불림, 아래: 남태를 이용한 밭불림)

【참고문헌】

국립국어원.

김광언, 『한국의 농기구』, 문화재관리국, 1969.

한국농업기계학회, 『한국농기구도감』, 2001.

고광민, 『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』, 1995.

김동섭, 『제주도 전래 농기구』, 2004.